

# 광주동부교육청,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지원 과정 연수 성료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양질의 상담 및 치유 서비스 제공

### 광주 관내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으로 특화된

### 소태동 소재 '지·세·움'의 운영 전문성 신장 목적으로 진행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22~29일 생활교육 담당 장학사, 지·세·움 운영교사, 전문상담교사, 특별연수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지원 전문가 과정 연수'를 성료했다.

29일 광주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지원 전문가 과정 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바탕을 두고 실시됐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양질의 상담 및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주 관내 학교폭력 피

해학생 전담지원기관으로 특화된 소태동 소재 '지·세·움'의 운영 전문성 신장 목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전문가 과정 연수에서는 ▲학생 놀이 치료 슈퍼바이저 강지희 박사의 '놀이를 통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방법' ▲미술치료 전문가 김보현 박사의 '미술을 통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방법' ▲노미숙 대표의 '그림책을 통한 감정코칭의 이해와 방법' 등 학생 상담 및 치유지원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해 심도 깊은 강의가 진행됐다.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즉각적인 보호와 치유 서비스 제공 방법,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에 대한 개별화 프로그램 운영 기술, 이를 통한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방법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전국 최초로 설립된 주간보호형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지·세·움' 운영에 적용해 광주형 학교폭력 지원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연수에 참여한 한 전문상담교사는 "교육 현장에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 피해가 있는데 이를 요인별로 접근하고 분석할 수 있어 학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맞춤형 개별화 프로그램을 학교폭력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었던 유익한 연수였다"고 밝혔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김철호 교육장은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세·움' 운영에



도움을 줬다"며 "우리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꼭 필요한 현장 맞춤형 전문가 양성 연수였고, 앞으로 이를 발전시켜 광주형 학교폭력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희기자

## 목포교육, 관내 모든 학교가 함께하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등교맞이

### 학생회와 전담 경찰관·지역 유관기관 등 함께 참여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갑수)은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학생회가 나선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학생회와 전담 경찰관, 지역 유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3월 23일부터~4월 1일까지 목포 관내 모든 초·중·고 학교의 아침 등교

맞이를 실시한다.

목포학교지원센터에서는 갈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 폭력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관내 학교 전체 등교맞이를 계획하였다. 학생회 연합회와 협력하여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한 방안을 담은 L자 화일을 제작하고 목포 관내 초·중·고 및 교사 전체 38,000장이 배부되었으며, 등교맞이 일정에 맞춰 학생회에서 배부 되었다. 초등학교용 L자 화일에는 서로의 연결을 위한 'WANT 대화법', 친구에게 사과하는 법을 담았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WANT 대화법', 안전한 학교 만들기 기를 위한 유의점, 학생회의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교사용의 경우 'WANT 대화법'과 학교폭력 지수 활용과 조기 개입, 음베우스의

안전한 학교 만들기 4대규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갑수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회와 유관 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등교맞이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함께 참여한 학생회와 교직원들에게는 목포의 학교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 대한 섬세한 관심과 지도를 당부 하였다.

또한 학교지원센터 최은순 센터장은 'L자 화일'이 학교 현장에서 잘 사용되길 희망한다며, 학급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폭력의 징후가 감지되면 어려워하지 말고 '평화교실' 운영을 신청하여 평화로운 학급을 만들자고 강조하였다.

목포=박정수기자

## 순천시립그림책도서관 '류재수 작가와의 만남'

### 제20회 그림책 원화전시 '류재수 그림책전' 기념

순천시(시장 허석)는 29일 오후 2시 그림책도서관 그림책극장에서 '류재수 작가와의 만남'을 개최했다.

본 행사는 현재 전시 중인 제20회 그림책 원화전시 '류재수 그림책전'을 기념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재수 작가와의 만남은 '나와 그림책의 만남-그림책, 영감은 어디서 오는가?', '한 권의

그림책이 의미하는 것-디지털 미디어와 그림책의 새로운 가치'라는 주제로 1,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류영선 그림책 미술평론가가 진행을 맡았다.

1부에서는 류재수 작가와 류영선 평론가가 대담자로 참여하여 그림책 작가의 길을 가게 된 계기, 작업 과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이어지는 2부는 디지털 미디어 세계의 동향과 그림책의 미래 전망에 대한 작가의 강연



으로 꾸며진다. 강연 직후에는 관객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순천=김승호기자

## 무안교육청, '창의융합 온라인 캠프' 진행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란)은 '무안 R&E 창의융합 발표토론 프로그램 설명회' (이하 설명회) 및 '창의융합 온라인 캠프'를 지난 3월 27일 무안교육지원청 초의선사실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설명회에 무안관내 중·고등학교 30명이 직접 참가하였고, 온라인으로 12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무안 R&E 창의융합 발표토론 프로그램 설명회'는 무안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창의융합적 사고와 종합적 사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기주도적 발표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사전안내를 위해 추진됐다.

이날 첫 번째 강연으로 김도연 울산공업학원 이사장(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4차 산업혁명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청소년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1회 강연에는 현장 참여자 30명, 온라인 130명, 총 160명이 참가하여 청소년의 미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창의융합적 사고와 자기주도적 발표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12주 동안 포스텍등 대학생 멘토를 활용한 발표토론교육 밀착지도, 김춘식교수(동신대)를 비롯한 대학교수들이 프로그램 운영교수 및 평가교수로 참여하여 진행된다.

또한, 창의융합 온라인 캠프(이하 온라인 캠프)는 '무안 R&E 창의융합 발표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 사전 지식 함양을 위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창의융합적 사고와 청소년의 미래"를 주제로 5회에 걸쳐 4월 10일 까지 매주 화, 토요일에 진행한다. 온라인 캠프는 누구나 zoom을 통하여 참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일정은 무안교육

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강연에 참여한 무안고 김OO 학생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미래사회의 변화와 청소년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란 교육장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창의융합 발표토론 프로그램과 온라인 캠프 참여를 통하여 새로운 경험과 교육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성기기자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